

정선 전씨(旌善全氏), 춘천 박씨(春川朴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동신당(洞神堂)

심수(深水)마을을 지켜주는 동신(洞神)으로, 옛날 많은 인명(人命)을 앗아간 홍역(紅疫)이 이 마을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전한다.

제13절 정명1리(正明一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명계천(明溪川)을 건너 동해(東海)를 바라보며, 서쪽은 금장산(金藏山) 지맥(支脈)인 분향대산(焚香大山) 주봉(主峰)이 솟아있고, 남쪽은 정명2리(正明二里) 섭실(薪谷)과 접(接)하며 북쪽은 정명천(正明川) 건너에 천산(天山)이 있다. 황응청(黃應淸) 효자각(孝子閣)과 안응준(安應俊) 효열각(孝烈閣)이 있다. 마을회관은 2011년에 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379년에 태사당(太師堂) 황서(黃瑞) 선생이 마을을 개척할 때 산세(山勢)가 바르고, 앞 내(川)가 맑게 흐르므로 정명(正明)이라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평해군(平海郡) 원북면(遠北面)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正明里)로 되었다. 사저(社底)는 조선조 중엽에 사직(社稷)이 있었다 하여 사저(社底)라 하였으며, 속칭 세재라고도 한다. 웅연(熊淵)은 산(山)의 모양이 곰같이 생겼고 마을 앞에 못이 있다 하여 웅연(熊淵) 또는 곰실이라고 한다.

3. 가구 분포

총 72세대가 거주하며 순흥 안씨(順興安氏), 김녕 김씨(金寧金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평해 황씨(平海黃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명계서원(明溪書院)

명계서원은 1671년(현종 12)에 울진 유림이 대해(大海) 황응청(黃應淸)[1524~1605]과 해월(海月) 황여일(黃汝一)[1556~1622]을 배향한 서원이다.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으며, 1881년(고종 18)에 유림이 유지(遺址)에 강학소를 세우고 향촌의 교육을 담당했다. 1982년에 지방 유림에서 강당인 상교당(尙敎堂)과 사당인 덕유사(德裕祠)를 복설하였다. 황응청은 1552년(명종 7)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1594년(선조 27) 장원서별제(掌苑署別提)를 제수받고 시폐(時弊) 4조를 논한 상소를 올렸으며 진보현감으로 덕정을 펼쳤다. 월천(月川) 조목(趙穆)[1524~1606]과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1538~1609] 등 당대의 지성들과의 교류했다.

2) 태사봉(太師峯)

황서(黃瑞) 선생이 살던 뒷산을 황서(黃瑞) 선생의 관지태사(官至太師)를 따서 태사봉(太師峯)이라 하고 있다.

3) 탁계곡(卓溪谷)

정명(正明) 뒷골이 너무 터져 있으므로 김탁계(金卓溪) 선생이 골(谷) 앞에 미루나무를 심어 골을 막았다 하여 탁계곡이라 하고 있다.

제14절 정명2리(正明二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봉산리(峰山里)가 있고, 서쪽은 산(山)을 넘어 조갯골(朝官谷)을 지나 황보리(黃堡里)가 있으며, 남쪽은 황보2리(黃堡二里)와 연결되고, 북쪽은 척산리(尺山里)와 연결된다. 마을회관은 2011년에 신축되었다.

2. 마을의 역사

정명2리(正明二里)는 어리(於峴), 섭실(薪谷), 뱀골(蛇谷) 3개의 마을로 형성되어있는데,